

치아 또는 치조의 발거

필요한 만큼 치조골을 제거하였을때 치아, 치조 또는 병소의 제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치아나 치조를 발치겸자로 잡을 수 있는 경우에는 elevator를 이용하기 보다는 발치겸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위축된 무치악에 잔존된 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elevator사용시 악골골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발치겸자를 사용 가볍게 회전력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elevator사용시는 가장 저항이 적은 쪽으로 즉 "line of withdrawal"을 따라 조심스럽게 힘을 가한다. 이때 지렛점이 필요한데 인접치가 아닌 치조골을 이용한다. "line of withdrawal"은 발거하려는 치아의 장축에 의해 결정된다. elevator는 치아의 근심, 협측 또는 원심부위에서 사용되며 힘은 치조(the point of application)에 작용하여야 한다. 때로 elevator의 작용을 주기 위하여 치근의 협측에 구멍을 만들기도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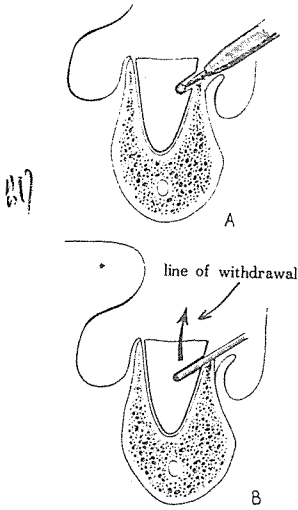


그림 1. round bur를 치아의 장축의 45°로 구멍을 뚫어준다.

만일 elevator사용시 치아가 잘 나오지 않으면 치아를 분리하여 발거한다. 치아분리시 bur나 osteotome을 사용한다.

osteotome은 chisel과 달리 bi-bevelled cutting end를 가지고 있다(그림 2).

osteotome의 모양이 치아와 접촉시 선으로 만나며 힘이 직선으로 작용하므로 치아분리에 이상적이다. mallet를 사용시 "pulled" tap 즉 때린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되도록 하며(그림 3), 때릴때 just sufficient strong, short, sharp(이를 -3-S라고 하는 부르고 있다.)한 힘을 가한다.

때로 bur로서 시작하여 osteotome을 이용하여 완전히 절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치아나 치조를 발거후 잔존된 치근단병소를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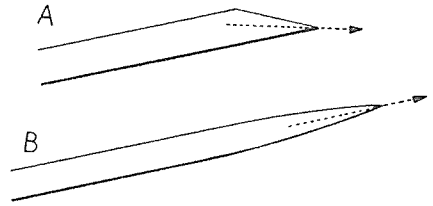


그림 2. A. chisel B. osteot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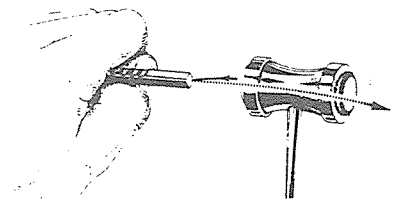


그림 3. mallet에 작용되는 힘의 형태

# 신일치과기공소

代表 孫 永 受

서울·중구 만리동 1가 62-18  
 ☎ 312-7869 · 393-2032